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정기태



'늬가 났다'는 목포지역 사투리가 있다. 옛날 밤앗간이나 우리네 어머니들은 나라를 도장하거나 밥을 지을 때 곧잘 '늬가 났다'는 말을 썼다.

사람이) 정말 싫다' '만사(萬事)가 귀찮다'는 뜻으로 쓰이는 것이다. '몹시 물리어 지긋지긋하게 느껴지는 생각'을 의미하는 표준어 '넋더러가 났다'는 말과 상당 부분 통하는 말이다.

누가 '늬를 나게' 하는가?

반성 없고 독선만 가득

식사 도중 늬가 씹히면 밥맛이 싹 달아난다. 조리질은 돌과 늬를 갈라내기 위한 것이다. 늬를 손으로 일일이 찾는 것도 어렵다.

고건 전(前) 총리가 대선 출마를 포기했다. 그로 하여금 정치에 늬가 나게 한 것은 AS(애프터 서비스)를 바라는 국회의원의 원일 수도 있고, 끝없이 물고 늘어졌던 청와대일 수도 있다.

다. 그는 "새로운 희망의 떨감을 치열한 자기반성에서 구해야 한다"며 '조직화된 기득권'에 집착하는 풍토를 개탄했다.

반면 남은 자들은 그런 탈출기도를 타 이타닉 행동(Titanic Behavior)이라며 비난했다. 허나 '늬가 나' 떠난 자와 '늬가 나게 한 자' 중 누가 살아남을지는 머잖아 유권자들이 선택할 것이다.

자살한 가수 유니의 경우 노출 컨셉과 성형수술에 거부감을 느낀 사이버 테러가 원인이었다고 한다. 어둠의 장막 뒤에 숨어 비난과 욕설을 퍼붓는 '악물러'(key-board warrior)들은 그녀로 하여금 삶에 염증을 느끼게 한 뒤였던 것이다.

하어, 홈페이지(homepage)를 운영하는 네티즌 중 상당수는 최근 일촌(一村)에게만 접근을 허용하거나 빗장을 걸어잠고고 있다. 행정기관·단체·쇼핑몰 등도 일부 코너를 폐쇄, 막막을 차단하고 있다.

얼린 유류당원의 원만한 탈당도 같은 맥락이다. 원내대표를 지낸 전정배 의원은 "(열우당) 종산총과 서민의 요구에 충실한 귀 기울이지 않았다"며 "국민이 철저한 반성과 변화를 요구했음에도 우리 자신을 변화시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정치에 늬가 나면 고건이나 열우당의 원천적 판을 깨면 된다. 직장에 늬가 나면 사표를 쓰면 끝난다. 삶에 늬가 나면, 스스로 목숨을 끊으면 그만이다.

하지만 이런 극단적인 처방이 과연 최선의 방법일까? 도대체 어떤 것들이 사람들을 벼랑으로 내몰고 있는 것일까?

확실한 비전 제시해야

문제는 독선과 아집이다. 자기 혼자 고고며, 본인 생각이 모두 맞다는 착각이 주변을 힘들게 하고 도저히 견딜 수 없게 만든다.

권위(權威)와 권위주의적이라는 낱말의 대칭적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무지(無知)가 늬를 만든다. 악화(惡貨)가 양화(良貨)를 구축(驅逐)하는 '그레섬(Gresham)의 법칙'은 오늘 한국에도 깊은 뿌리를 박고 있는 것이다.

늬를 나게 하는 사회에서는 내일을 기약할 수 없다. 비전(vision)을 제시하지 못하는 조직은 모래성고 같다.

그런 국가와 사회가 글로벌 시대에 경쟁력을 갖추 리 만무하다. 마음과 언어가 혼돈돼 무너졌던 바벨탑(Tower of Babel)처럼, 어느 순간 스러질 것이다.

자, 이제 진지하게 과거를 성찰(省察)해보자. 나와 내가 속한 집단, 우리 사회는 혹 다른 사람을 쫓아내는 늬 같은 존재가 아닌가?

〈사회1부장〉meonsan@kwangju.co.kr

시설

'개발특별법' 난립 균형발전 발목잡는다

참여정부 들어 개발특별법이 하루가 멀다 하고 쏟아지고 있다. 정부는 물론 일선 지방자치단체도 '지역개발=특별법 제정'을 당연하게 인식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을 정도다.

제활성화를 위해 특별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수도권 과밀화 해소와 낙후지역 개발을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특별법 취지에 크게 벗어나는 억지다.

개발특별법의 취지는 광주·전남지역과 같은 낙후지역의 개발을 촉진해 국토균형발전을 이루는 데 있다.

지역 간 막대용 성격의 특별법 난립도 문제다. 한 지역이 특별법 제정을 요구했으니 타당성이나 실효성 여부는 따지지 않고 무조건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으로 너도나도 개발특별법을 추진해서는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개발특별법의 남용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목적 달성보다는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개발특별법의 남용은 국토균형발전을 위한 목적 달성보다는 환경을 파괴하는 부작용만 낳을 우려가 있어야 한다. 그래야 지방활성화를 통한 균형발전이라는 당초 취지를 살릴 수 있다.

가계빚 사상 최고...조짐이 심상치 않다

가계대출과 외상구매가 늘면서 가계 빚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현재 가계대출과 판매신용(외상구매액)을 합친 가계신용 잔액은 581조9천635억원으로 2005년 말에 비해 11.6%(60조4천676억원) 증가했다.

용도는 45.4%였다. 금융권이 저금리 체제에서 넘쳐나는 자금을 굴릴 곳이 없어 가계대출에 경쟁적으로 뛰어들어 결과인 셈이다.

최근 가계빚 증가세는 예사롭지 않다. 가계신용 잔액 증가액은 신용카드 남발에 따라 거품소비가 절정에 달했던 2002년 97조3천866억원(28.5%)을 기록했다가 정부가 가계대출 억제정책을 펼 2003년 8조5천77억원(1.9%)으로 급감했으나 2004년 27조948억원(6.1%), 2005년 46조8336억원(9.9%)으로 다시 급상승하고 있다.

가계빚 급증은 엄청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금융권은 주택담보대출 금리 등을 잇따라 인상하고 있다. 깊은 불황으로 이자를 제 때 못내거나 원금을 갚지 못하는 사람이 증가하면 금융권은 대출금 회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

가계대출의 절반 이상은 주택담보대출 등 부채상환과 관련된 것이다. 지난해 4·4분기 시중은행의 용도별 대출은 주택대출이 54.6%인 반면 소비 및 기타

정부는 가계빚 사상 최고치에 위기의식을 가져야 한다. 가계 빚 급증위기가 닥치면 국가경제가 흔들릴 수 있다. 정부가 가계빚까지 책임질 수는 없지만 부작용이 큰 만큼 위기가 오지 않도록 관리해야 할 의무는 있다.

無等鼓

바람개비는 옛날 시골 어린이들에겐 꽤 인기있는 놀이감이었다. 두꺼운 종이와 1자 크기의 수수깡만 있으면 금방 만들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마땅히 가지고 놀 만한 장난감도 귀했기 때문이었다.

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삼성 전자 주주총회에서였다.

바람개비론



그가 바람개비를 들고 나온 것은 현 재 여권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앞서 가는 일본과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다.

그가 바람개비를 들고 나온 것은 현 재 여권이 받지 않기 때문이다. 한국은 앞서 가는 일본과 추격하는 중국 사이에 '샌드위치' 신세다. 고유가와 환율 불안도 수출 비중이 높은 한국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국내 유명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바람개비를 설교하며 초일류기업 도약을 선언하고 나서 주목을 받고 있다.

적 사고로 새 시장을 창출하는 프리미엄 제품을 개발하면 초일류 기업으로 나갈 수 있다는 직원들에 대한 체적인 셈이다.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

가장간담회에서 "바람이 불지 않는다고 기다리기보다는 앞으로 달려 나가서라도 바람개비를 돌려겠다"고 말했다. 쉬운 기회가 찾아올 때까지 앉아서 기다리지 말고 앞으로 전진하며 바람개비를 돌려야 한다.

은펜칼럼

박홍근



광주디자인비엔날레는 2005년 '삶을 비추는 디자인'이라는 주제로 시작하여 올해로 2회째를 맞게 된다. 기존의 '광주비엔날레'와 함께 문화와 산업이 융화된 시너지효과를 창출하여 지역발전의 계기 마련 및 디자인의 저변확대를 기대한다고 한다.

'사람에 대한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다.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게 되면 보이나니 그 때 보이는 것은 그 이전에 그것과는 다르다'라 하지 않는가? 우리가 그 무언가를 사랑하면 분명 그 이전에 다르게 보인다.

'사랑하는 사람을 위한 디자인'

에서 필요한 전반적인 분야에 관련되어 있으며, 산업의 발달과 문화수준의 향상에 따라 더욱더 필요로 하는 것이다. 산업화초기의 제품은 매우 기능적이고, 기계적인 형태를 가졌다.

디자인이란 우리생활의 불편한 요소를 개선하는 것으로 미적 조형성, 사용성 편리성과 독창성을 갖고 있는 제품뿐 아니라 편리한 생활을 위한 아이디어를 포함한다. 다시 말해 우리 생활 디자인이란 우리생활의 불편한 요소나 사용할 수 없거나 어는 한 개인만을 위한 것이 아닌 생활에 유익한 것이어야 한다.

'은펜칼럼은 매일 광주일보 '오피니언'면 기고자중 최우수작에 수여하는 '은펜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기고를 실는 코너입니다.

기고

조상열



조상열에 들어서자마자 곳곳에서 백화(百花)가 다부어 꽃망울을 터뜨려 화신(花信)을 전하며 발길을 불끈다.

(天災)보다는 인재(人災)에 있었던 교훈을 얻지만 곧잘 잊어먹고 불감증에 익숙한 것도 문제다. 살기가 팽배해져 물은 뜬고자 들로 나서는 아낙이나 고로쇠물을 찾아 계곡을 찾는 행객들의 발걸음이 마냥 흥겹다.

'춥고 고통스러운 새'의 교훈

포근한 겨울을 좋아하는 사람들 반면에 울상을 짓는 사람도 많았다. 바로 겨울 장사로 일년 농사를 짓는 스키어터장이나 난방기구 장사들이 아니었는가.

에서 밤새껏 떨면서 "내일 날이 새면 꼭 집을 지읍시다"라며 결심을 하곤 했다. 밤새껏 잠도 제대로 자지 못하고 추위에 떨다가 아침이 밝아 오면 언제 그랬냐는 듯 따스한 햇살이 피고, 한교조 부부도 밤 동안의 추위를 까마귀 고기 먹은 양 잊어버리곤 했다.

전체 관람가 영화에 선정적 예고편 나와서야

얼마 전 초등학교에 다니는 동생과 함께 영화를 보려고 극장에 갔다. '전체 관람가'영화라 극장 안은 어린 자녀들과 함께 온 부모들이 많았다.

아이들 호기심에 계속 보고 있었다. 아무리 개봉 예정자의 예고편이지만 어린이도 같이 보는 영화를 상영할 때는 선정적인 장면이 나오는 홍보는 삼가야 한다.

주유소 화장실 불결... 고객들에 최소한의 서비스 보여야

나주로 가다가 용변이 급하다는 아이를 데리고 국도변 주유소에 들렀는데, 밤인데도 불이 켜지지 않아 주유소 관리인에게 말했더니 남자 화장실을 이용하라고 했다.

광주·전남 지역에서도 이 같은 제도를 도입해보면 어떨까. 전동 문제·환경기 작동 여부·정수 불량·잠금 장치 불량 등을 점검해 제대로 고쳐지지 않을 경우 행정적 제재를 가하는 것도 생각해보면 한다.

▲문성희·목포시 축우동

▲우환화·광주시 북구 우산동

Table with publication details for Kwangju Ilbo, including contact information and subscription rates.